

# ‘최약체’ AI페퍼스, ‘선두’ 현대건설 격침 대이변

10일 5R 홈경기서 3-2 역전승 3연패 탈출과 시즌 3승째 수확 주포 니아 리드 36점 고공폭격 이경수 “다음 경기 잘 준비할 것”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를 누가 최약체라 했는가.

AI페퍼스는 지난 10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현대건설과 2022-23시즌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경기에서 폴세트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2(21-25 25-20 20-25 25-20 15-12)로 역전승을 거뒀다.

AI페퍼스 선수들의 승리 열망을 향한 간절함이 집중력으로 이어지며 ‘선두’ 현대건설을 격침시키는 대 이변이 연출됐다.

마치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펄펄 날며 승리를 낚아채며 승전고를 알렸다.

AI페퍼스 3연패 부진 탈출과 동시에 시즌 3승이 이뤄진 순간은 더욱 짜릿했다. 경기장을 찾은 1930명의 지역 팬들은

환호성과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며 AI페퍼스 선수들의 승리를 축하했다. 게임이 종료되자 선수들도 모두 코트 위로 달려나가 열싸 안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AI페퍼스의 이번 승리는 선수들의 승리를 향한 간절한 열망과 집중력을 발휘한 결과물이었다.

AI페퍼스 선수들은 이날 이전 경기와는 달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눈빛부터가 달랐다. 지난 1월23일 GS칼텍스에 3-1 승리 후 다시 3연패 부진에 빠졌지만 리베로 오지영을 중심으로 한 수비가 안정화 되고 주포 니아 리드의 공격력이 향상된 데 따른 자신감이었다. 여기에 수준급 리베로 김연경의 부상 이탈과 외국인 선수 교체로 인한 상대의 경기력 약화에 전갈이 없다는 판단에 ‘해볼 만 하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AI페퍼스는 이날 리시브 효율 42.11%의 높은 수비 집중력을 보이며 현대건설을 괴롭혔다. 주포 니아 리드는 승부처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며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인 36점을 올렸다. 이한비(15득점), 최가은(블로킹 7개·15득점), 박경현(10득점)도 공격에 힘을 보탤다.



AI페퍼스 선수들이 지난 10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현대건설과의 2022~2023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 승리를 거둔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리베로 오지영은 디그(28개)와 리시브(14개)를 책임지며 수비 라인을 든든히 지켰다.

AI페퍼스의 수비 집중력은 1세트부터 발휘됐다. 리시브 효율 52.17%로 끈질긴 수비를 펼치며 현대건설과 대등한 경기력을 펼쳤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 서브 범실로 자멸하며 첫 세트를 내줬다.

AI페퍼스는 2세트에서 막판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반격에 성공했다. AI페

퍼스는 19-19 동점 이후 이한비, 이민서, 오지영, 이고은의 수비 집중력을 앞세워 24-20으로 승기를 잡았고 상대 몬타뇨의 범실로 세트를 마무리지었다.

3세트에서도 투지 넘친 플레이를 펼쳤으나 현대건설의 노련미에 아쉬움을 삼킨 AI페퍼스는 4세트 초반 8-1로 달아나며 주도권을 쥐었고 이후에도 집중력을 유지하며 세트를 따내 경기를 폴세트로 끌고 갔다.

기세가 오른 AI페퍼스는 5세트도 따내며 ‘거함’ 현대건설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시소게임으로 12-12 동점인 상황에서 이고은의 영리한 페이스 페인팅 득점과 이한비의 블로커 아웃 득점으로 세트포인트를 만든 AI페퍼스는 상대 고예림의 공격 범실로 마지막 득점을 올리며 승리의 눈물을 흘렸다.

AI페퍼스의 이번 승리는 선수들에게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시즌 현대건설전에서 이어지던 4연패 탈출과 창단 첫 현대건설전 승리로 선수들은 이제 어떤 팀을 상대해도 주눅들지 않고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맞서 싸운다면 더 많은 승리를 따낼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갖게 됐다.

이경수 AI페퍼스 감독대행은 “선수들이 이기려고 집중력을 끝까지 발휘했고 4세트 큰 점수 차 리드 상황에서 선수들이 버텨준 게 승리요인”이라며 “오늘 승리로 만족하지 않고 다음 경기 준비를 잘해 좋은 경기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AI페퍼스는 오는 15일 오후 7시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흥국생명과의 5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 김진영, 장애인동계체전 광주에 첫 금 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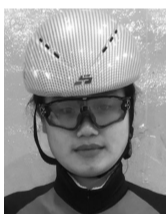
빙상 여자 1000m 1분59초49 1위

광주 빙상 김진영(지적장애·사진)이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광주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김진영은 12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빙상경기장에서 열린 빙상 여자 1000m IDD(성인 동호인부) 결승에서 1분59초49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 빙상 윤좌현(지적장애)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윤좌현은 12일 열린 빙상 남자 1000m IDD(성인 동호인부) 결승에서 1분49초57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윤좌현은 전날 열린 빙상 남자 500m IDD(성인 동호인부) 결승에서도 53초83으로 3위를 기록했다.

광주 바이애슬론 김세정(지적장애)은 지난 11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바이애슬론 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바이애슬론 중거리 7.5km 좌식경기(선수부) 결승에서 34분55초20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 빙상 유승협(지적장애)은 2개의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승협은 11일 빙상 남자 500m IDD(성인 동호인부) 결승에서 49초39로 은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12일 빙상 남자 1000m IDD(성인 동호인부) 결승에서도 1분41초43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전남 최재형(지적장애)은 12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바이애슬론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크로스컨트리스키 4km Classic IDD(동호인부) 결승에서 12분06초60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남 박정철(청각장애)은 11일 빙상 남자 500m DB(동호인부)와 12일 빙상 남자 1000m DB(동호인부)에서 각각 2분24초52와 1분12초06으로 모두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전남 방민자·정승원은 지난 10일 혼성 휠체어컬링 2인조 3-4위전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최동환 기자

## 펜싱 女 에페 강영미, 바르셀로나 월드컵 개인전 준우승

한국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의 만년니 강영미(38·광주 서구청·사진)가 바르셀로나 월드컵 개인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강영미는 11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여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나탈리에 모엘라우센(브라질)에 8-15로 져 2위를 차지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에페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인 강영미가 월드컵 개인전에서 시상대에 오른 건 2021년 3월 러시아카잔월드컵 동메달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강영미는 준결승전에서 쉰이원(중국)



을 12-7로 꺾고 처음으로 월드컵 개인전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엘라우센에게 석패하며 우승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세계랭킹 2위 송세라(부산광역시청)는 17위에 그쳤다.

한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남자 사브르 월드컵예선 구분길(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9위에 올랐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치러진 여자 사브르 월드컵예선 전하영(서울특별시청)이 27위에 머물렀다.

최동환 기자



잡지마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왼쪽)이 12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3라운드 레스터 시티와 경기 중 공을 다루고 있다. 폴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침묵했고 팀은 1-4로 대패했다.

AP/뉴시스

## ‘무패 행진’ 광주시공사, 女핸드볼 단독 선두 질주

SK슈글즈에 29-24... 7연승 창단 첫 전구단 상대 승리

올시즌 여자핸드볼 선두 광주시공사가 패배를 잊었다. 광주시공사는 파죽의 7연승과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리그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또 창단 후 첫 전 구단 상대 승리 기록도 달성했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시공사는 12일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2라운드 SK슈가글라이더즈에 29-24로 이겼다.

이로써 광주시공사는 7연승과 함께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9승 1무, 승점 19점으로 리그 1위 자리를 지켰다.

광주시공사는 이날 승리로 팀 최다연승 기록을 ‘7’로 늘렸고 창단 후 처음으로 전 구단 상대 승리 기록도 세웠다.

광주시공사 골키퍼 박조은의 활약이 빛났다. 박조은은 상대 36개의 슈트 중 14개(38.9%)를 막아내 팀 승리를 이끌며 경기 MVP로 선정됐다.

에이스강경민은 13득점 4도움, 송혜수가 5득점 2도움, 정현희가 4득점 4도움으로 승리에 힘을 보탤다.

전반을 12-14, 2골 차로 뒤진채 마친 광주시공사는 후반들어 집중력을 발휘하며 특유의 속공플레이로 승부를 뒤집었다. 정현희와 김지현의 연속 골로 14-14 동점을 만든 광주시공사는 시소게임을 이어가다 강경민의 연속 3득점으로 22-19로 앞서 나갔다. 이후 상대 추격에 1골 차로 쫓겼지만 골키퍼 박조은의 잇따른 선방과 송혜수, 정현희의 활약에 힘입어 5골 차 승리를 거머쥐었다.

광주시공사는 앞서 지난 10일 대구 시청과의 5라운드 경기에선 12골을 넣은 강경민의 활약에 힘입어 29-22로 이겼다.

최동환 기자